

<http://dx.doi.org/10.17703/JCCT.2023.9.5.47>

JCCT 2023-9-6

하브루타 학습법의 사용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The Effect of the Education Applying Havruta's Method on Communication Competency, Problem Solving Capability, and Self-Esteem of Nursing Students'

김화영*, 나은하**

Hwa-Young Kim*, Eun-Ha Na**

요약 본 연구는 하브루타 학습법의 사용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3학년 중 성인간호학 수업을 수강한 학생 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023학년 1학기 시작과 종료 시점에 2회 자가보고식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고, SPSS 23.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하브루타 학습법을 사용한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t=3.31$, $p=0.001$), 자아존중감($t=2.84$, $p=0.019$), 문제해결능력의 9개 하위요소에서도 모두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의사소통능력($t=1.78$, $p=0.079$)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로 하브루타 학습법이 간호대학생의 역량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하브루타 학습법의 적용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친구 가르치기와 문제 만들기 이외의 다양한 하브루타 학습법을 적용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요어 : 하브루타,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아존중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 education applying Havruta's method for nursing students and to examine its effect on the communication competency, problem solving capability, and self-esteem. This study is the experimental group have take part in a Havruta's method course and the control group do a traditional course. Data is collect at begin and finish of semester in 2023 and analyzed using the SPSS 23.0 program. Result Problem solving capability and self-esteem of nursing students using the Havruta's method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the control group, but communication competency is not significant. Application of Havruta's method has to be extended to increase nursing students competencies and research applying various Havruta methods other than teaching friends and making problems should be conducted.

Key words : Havruta, Communication Competency, Problem Solving Capability, Self-Esteem

*정희원, 목포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제1저자)
**정희원, 광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교신저자)
접수일: 2023년 7월 16일, 수정완료일: 2023년 8월 11일
게재확정일: 2023년 8월 15일

Received: July 16, 2023 / Revised: August 11, 2023
Accepted: August 15, 2023
*Corresponding Author: khy@mcu.ac.kr
Dept. of Nursing, Mokpo Catholic Univ, Korea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학습은 새로운 것을 습득하는 과정이고 그 과정을 통해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학습자는 학습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학습에 방해가 되는 상황으로부터 스스로를 통제하는 것 외에도 특정 교과목의 학습 기술에 숙련되어야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1]. 이러한 맥락에서 메타인지는 학습과정에서 학습을 계획, 점검, 조절 할 수 있는 학습전략적인 능력으로 정의된다. 최근에는 메타인지 능력을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학습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간호교육도 플립러닝(flipped learning), 문제 중심 기반학습(PBL), 하브루타(Havruta), 팀 기반학습(TBL) 등 다양한 학습법을 활용하면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2][3]. 특히 하브루타 학습법은 단편적 지식 습득보다는 자기의 의사를 올바르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4].

하브루타 학습법은 현재 대학에서 사용하는 수업 구조와는 다르게 접근하는데, 기존의 교수법은 배움이 교사에게서 나온다고 한다면 역으로 배움이 학생에게서 이루어진다고 전제한다[5]. 기존의 교수-학습 체제를 변화시키고 수정함으로써 가르침과 배움의 수직적인 관계를 수평적인 교육구조로 이동하는 형태이다. 하브루타는 친구와 함께 공부하면서 친구에게서 배우는가 하면 친구를 가르치기도 하는 방법이다. 친구와 함께 질문하고 토론하며, 다른 생각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거나 다른 질문을 유도한다[6]. 기본적으로 하브루타는 대화로 이루어지므로 의사소통능력, 경청하는 능력, 설득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5]. 따라서 하브루타 학습법을 통하여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각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하브루타 학습을[7] 간호학에 적용하면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은 간호교육에서의 목적과 목표 달성의 일환으로 간호학생이 달성해야 하는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성장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다[8]. 이 중 의사소통능력은 임상현장에서 간호사가 대상자 간, 간호사와 다양한 직종 간, 간호사 간의

치료적 관계 및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환자 안전과 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의 증가, 간호대학생 수 증가로 임상실습 장소의 부족 등이 학생들의 실습 중 효과적인 의사소통능력을 배우거나 경험할 기회를 줄이고 있다[9]. 따라서 학습을 통하여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친구끼리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하브루타 학습을[7] 간호학에 적용하면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은 다양한 간호상황에서 협력을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5]. 이러한 경험은 주어진 문제를 분석하여 해결할 수 있는 학습자 스스로의 문제 해결 능력의 향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10].

예측할 수 없는 환경적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질병과 감염병을 가진 환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의료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간호사에게 효과적이고 기술적인 간호를 바탕으로 한 통합적인 문제해결능력이 요구되고 있다[11]. 간호대학생은 사례마다 자기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여 선택, 적용해야 하는 임상현장의 특성으로 인해 문제해결능력이 필요하며[12], 추후 간호실무 환경이 통제되지 않은 상황 즉 수시로 급박한 위기 상황일 지라도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문제해결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13]. 그러나 직접적 임상실습 경험에 제한이 있는 현재 상황에서 간호대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 향상은 학습법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하브루타 학습법은 학생들 스스로의 의사소통능력 뿐 아니라 문제해결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용한 학습법이라 하겠다.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의 향상은 대학생활과 임상실습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개인이 지닌 자존감의 개인적 가치를 인식하는 자아존중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란 상황에 관계없이 스스로에 대한 존중이 확고함을 말하는데, 자신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 및 자기 자신의 능력과 가치에 관한 평가적 정서이다[14]. 학생들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신의 성공에 대해 자랑스러워한다[15]. 자아존중감은 대학생활 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6][17]. 하브루타는 정답을 요구하지 않고 다양한 해답을 찾는 것이며 이는 자아존중감의 발달과 관련이 있다[18]. 하브루타 학습법은 학생들이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구성원으로 수용받고 인정받으며 집단 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와 존중을 받음으로 발달한다[19].

하브루타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방법이나[20], 최소한의 조건이 필요하다. Kent에 의하면, 하브루타 수업은 6가지 원리, ‘경청하기’, ‘피드백’, ‘반문하기’, ‘집중하기’, ‘지지하기’, ‘도전하기’에 의해서 행해진다. 또한 하브루타는 5가지의 수업모형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질문 중심 하브루타 수업모형’, ‘논쟁 중심 하브루타 수업모형’, ‘비교중심 하브루타 수업모형’, ‘친구 가르치기 하브루타 수업모형’, ‘문제 만들기 하브루타 수업모형’이다. 이러한 다양한 원리와 수업 모형을 사용하여 하브루타 학습법을 적용한 후 효과를 검증한 연구를 보면 온라인 토론 활동이 대학생들의 토론능력과 학습동기를 살펴 본 연구[20], 토론학습의 교직과목 수업 적용에 관한 연구[21], 토론수업의 효과 연구[22]가 있다. 이들은 토론 수업이 학생들의 토론 능력 향상 뿐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하브루타 수업모형에 대한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전공 수업에 전통적인 강의형 수업과 하브루타 학습법을 사용한 강의의 효과를 비교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인간호학을 수강하는 간호대학생에게 하브루타 학습법을 적용하여 의사소통능력, 문제 해결능력 및 자아존중감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고 향후 교육 현장에서 하브루타 학습법이 활용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하브루타 학습법의 사용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3. 연구가설

- 가설 1. 하브루타 학습법을 적용한 실험군은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 가설 2. 하브루타 학습법을 적용한 실험군은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 가설 3. 하브루타 학습법을 적용한 실험군은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자아존중감이 향상될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하브루타 학습법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능력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사후설계를 적용한 유사실험연구이다. 성인간호학 수업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브루타 학습법을 사용한 실험군과 전통적인 강의형 교육을 받은 대조군을 비교하기 위하여 시행하였으며, 연구설계는 다음과 같다<표1>.

표 1. 연구설계
 Table 1. Research Design

	사전조사	중재	사후조사
실험군	E ₁	Xe	E ₂
대조군	C ₁	Xc	C ₂

※ E: Experimental group, C: Control group, Xe: 하브루타 학습법 수업, Xc: 전통적 강의 수업

2. 연구 대상

연구는 J도에 있는 C대학과 D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3학년으로 성인간호학 수업에 등록한 105명을 대상으로 한다.

3. 자료수집방법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사전조사 2023년 3월 6일부터 3월 17일까지, 사후조사 5월 22일부터 6월 2일까지이다. 표본의 크기는 캡스톤 간호연구 수업으로 유사실험연구를 시행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설정하였다[23]. G-power 3.1.9.2 프로그램에서 t-test를 이용한 두 집단의 평균차이 검증을 적용하여 효과크기 .65,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양측검증 시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 수는 총 78명, 각 집단별 39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군 50명, 대조군 55명, 총 대상자 수 10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하여 연구목적 및 방법, 비밀보장과 익명성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글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본인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고, 철회 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설명하였다. 실험군은 사전 43명 사후 46명, 대조군은 사전 50명 사후 45명의 답변이 최종 사용되었으며 이는 연구가설 검증에 필요한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4. 수업 운영방법

1) 하브루타 학습법을 사용한 성인간호학 수업

하브루타 학습법은 다른 사람을 직접 가르치는 공부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하브루타의 여러 유형 중 서로 짝

을 지어 친구와 함께 공부하면서 친구에게서 배우거나 가르치는 방법인 친구 가르치기 하브루타 수업모형과 문제 만들기 하브루타 수업모형을 사용하였다. 3학년에게 진행되는 성인간호학 15주 수업에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제외한 13주 중 친구 가르치기 하브루타 학습법과 문제 만들기 하브루타 학습법을 6회 적용하였으며, 1회 강의 2시간 중 1시간 씩 운영되었다. 문제 만들기 하브루타의 결과물은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명에서 최대 4명으로 학생들이 자유롭게 구성하도록 하였다.

2) 전통적인 강의를 이용한 수업

성인간호학 수업은 전공 필수 교과목으로 대학의 정규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15주 2시간 강의로 담당 교수의 수업계획서에 따라 충실히 운영되었다.

5. 연구도구

1)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능력 측정을 위하여 Rubin과 Martin[24]이 개발한 대인 의사소통능력 측정도구(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ICC)에서 제시한 8가지 의사소통능력 구성개념에 허경호[25]가 7가지 개념을 합하여 수정·보완한 포괄적 의사소통능력 척도(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y Scale, GICC)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5문항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0.72였으며[22], 본 연구는 0.93이었다.

2) 문제해결능력

문제해결능력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이석재 등[26]이 개발한 생애 능력 측정 도구 중 대학생/성인용 문제해결능력 측정도구를 사용 하였다. 본 도구는 총 45문항으로 5개의 능력요소(문제명료화 5문항, 원인분석 10문항, 대안개발 10문항, 계획/실행 10문항, 수행평가 10문항)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다시 9개의 하위요소로 구분되었다. 능력요소별 하위요소는 문제의 명료화(문제인식 5문항), 원인분석(정보수집 5문항, 분석능력 5문항), 대안개발(확산적 사고 5문항, 의사결정 5문항), 계획/실행(기획력 5문항, 실행과 모험 감수 5문항), 수행평가(평가 5문항, 피드백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매우 드물게' 1점

에서 '매우 자주'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높은 것이다. 도구의 개발당시 Cronbach's $\alpha=0.94$ 였고, 김은휘 외[23]의 연구에서도 Cronbach's $\alpha=0.94$ 였으며, 하부요소의 신뢰도는 문제인식 0.81, 정보수집 0.68, 분석능력 0.76, 확산적 사고 0.59, 의사결정 0.76, 기획력 0.77, 실행과 모험 감수 0.80, 평가 0.77, 피드백 0.83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0.97$ 이었고 하부요인의 Cronbach's α 는 문제인식 0.90, 정보수집 0.74, 분석능력 0.88, 확산적 사고 0.80, 의사결정 0.88, 기획력 0.89, 실행과 모험 감수 0.87, 평가 0.85, 피드백 0.86이었다.

3)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측정 도구(Self-Esteem Scale, SES)를 전병제가 번안하고[14], 번역요류를 수정하여 문항수준의 타당도를 높인 이자영 등[27]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나타내는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응답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부정적 문항(3, 5, 8, 9, 10번)에 대한 응답은 역채점하였다. 이자영 등[27]의 수정척도를 사용한 이민아 등[28]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0.84$ 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0.90$ 이었다.

6.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동질성은 χ^2 -test 와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중재 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동질성은 independent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중재 전 후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의 차이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평균값의 차이검증과 중재 후 자아존중감에 대한 두 군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동질성 검정

1)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은 <표2>와 같다. 대상자의 성별은 여자가 실험군 32명, 대조군 35명으로 남자 실험군 11명, 대조군 15명보다 많았으며, 나이는 실험군 대조군 모두 22세 이하가 27명, 23명으로 많았다. 형제는 2명이 실험군 34명, 대조군 32명으로 많았으며, 종교는 기타가 실험군 30명, 대조군 39명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는 만족이 실험군 31명, 대조군 28명으로 많았으며 불만족은 없었다. 학업성취도는 직전학기의 성인간호학 교과목 성적으로 A 이상을 상, B 이상을 중, C+이하를 하로 하였을 때 중이 실험군 25명, 대조군 35명으로 많았다.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일반적 특성은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p>0.05$).

표 2.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
 Table 2. Homogeneity test for general characteristics

변수	항목	실험군 (n=43)	대조군 (n=50)	χ^2	p
		n(%)	n(%)		
성별	남	11(25.6)	15(30.0)	0.22	0.636
	여	32(74.4)	35(70.0)		
나이	22세 이하	27(62.8)	23(48.0)	2.64	0.268
	23-24세	8(18.6)	13(26.0)		
	25세 이상	8(18.6)	14(28.0)		
형제	본인 1명	2(4.7)	3(6.0)	2.66	0.265
	2명	34(79.0)	32(64.0)		
	3명 이상	7(16.3)	15(30.0)		
종교	천주교	4(9.3)	3(6.0)	0.85	0.653
	기독교	9(20.9)	8(16.0)		
	기타	30(69.8)	39(78.0)		
전공 만족도	불만족	0(0)	0(0)	2.58	0.108
	보통	12(27.9)	22(44.0)		
	만족	31(72.1)	28(56.0)		
학업 성취도	하	8(18.6)	8(16.0)	2.06	0.356
	중	25(58.1)	35(70.0)		
	상	10(23.3)	7(14.0)		

2)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정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정은 <표3>과 같다.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 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소인 문제인식, 정보수집, 분석능력, 확산적 사고, 의사결정, 기획력, 실행과 모험 감수, 평가, 피드백은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p>0.05$).

표 3.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정
 Table 3. Preliminary homogeneity test for communication competency and problem solving capability

변수	실험군 (n=43)	대조군 (n=50)	t	p	
	M±SD	M±SD			
의사소통능력	3.64±.57	3.59±.64	0.40	0.691	
문제해결능력	3.54±.53	3.44±.50	0.93	0.356	
(n=93)	문제인식	3.64±.61	3.63±.67	0.10	0.918
	정보수집	3.42±.63	3.30±.55	1.01	0.314
	분석능력	3.59±.64	3.55±.62	0.33	0.745
	확산적 사고	3.38±.63	3.32±.59	0.49	0.629
	의사결정	3.67±.70	3.49±.62	1.30	0.199
	기획력	3.52±.72	3.41±.74	0.72	0.474
	실행과 모험감수	3.37±.67	3.30±.69	0.45	0.654
	평가	3.56±.63	3.44±.56	0.99	0.324
	피드백	3.67±.62	3.49±.59	1.41	0.162

2.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 검정

1) 가설 1. “하브루타 학습법을 적용한 실험군은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하브루타 학습법을 적용한 수업 후 실험군의 의사소통능력은 3.64점에서 4.01점으로 0.37점 향상된 반면 대조군은 3.80점에서 3.59점으로 0.21점 향상되어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더 큰 향상을 보였으나, 두 군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t=1.78, p=0.079$) ‘가설1’은 기각되었다<표 3>.

2) 가설 2. “하브루타 학습법을 적용한 실험군은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하브루타 학습법을 적용한 수업 후 실험군의 문제해결능력은 3.54점에서 4.10점으로 0.56점 향상된 반면 대조군은 3.44점에서 3.73점으로 0.29점 향상되어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더 큰 향상을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2’는 지지되었다($t=3.31, p=0.001$). 하부요소를 살펴보면 문제인식($t=2.85, p=0.005$), 정보수집($t=2.60, p=0.011$), 분석능력($t=4.15, p<0.001$), 확산적 사고($t=2.31, p=0.023$), 의사결정($t=3.07, p=0.003$), 기획력($t=3.10, p=0.003$), 실행과 모험 감수($t=2.11, p=0.038$), 평가($t=2.68, p=0.009$), 피드백($t=3.17, p=0.002$)으로 나타나 모든 영역에서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표3>.

3) 가설 3. “하브루타 학습법을 적용한 실험군은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자아존중감이 향상될 것이다.” 하브루타 학습법을 적용한 수업 후 실험군의 자아존중감은 3.51점에서 3.93점으로 0.43점 향상된 반면 대조군은 3.46점에서 3.61점으로 0.15점 향상되어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더 큰 향상을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t=2.84, p=0.019$) ‘가설3’은 지지되었다<표3>.

표 4.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 검정
Table 4. Difference test between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변수	그룹	사전	사후	M(df) ±SD	t	p
		M±SD	M±SD			
의사소통 능력	실험군	3.64±0.57	4.01±0.53	0.37±0.12	1.78	0.079
	대조군	3.59±0.64	3.80±0.58	0.21±0.13		
문제해결 능력	실험군	3.54±0.53	4.10±0.50	0.56±0.11	3.31	0.001
	대조군	3.44±0.50	3.73±0.57	0.29±0.11		
문제 인식	실험군	3.64±0.61	4.26±0.59	.062±0.13	2.85	0.005
	대조군	3.63±0.67	3.87±0.71	0.24±0.15		
정보 수집	실험군	3.42±0.63	3.89±0.56	0.47±0.13	2.60	0.011
	대조군	3.30±0.55	3.58±0.58	0.28±0.12		
분석 능력	실험군	3.59±0.64	4.22±0.50	0.63±0.12	4.15	0.000
	대조군	3.55±0.62	3.75±0.59	0.20±0.13		
확산적 사고	실험군	3.38±0.63	3.94±0.72	0.56±0.14	2.31	0.023
	대조군	3.32±0.59	3.60±0.68	0.28±0.13		
의사 결정	실험군	3.67±0.70	4.12±0.56	0.46±0.13	3.07	0.003
	대조군	3.49±0.62	3.76±0.58	0.27±0.13		
기획력	실험군	3.52±0.72	4.17±0.62	0.64±0.14	3.10	0.003
	대조군	3.41±0.74	3.76±0.63	0.35±0.15		
실행과 모험감수	실험군	3.37±0.67	4.07±0.59	0.70±0.13	2.11	0.038
	대조군	3.30±0.69	3.78±0.72	0.48±0.15		
평가	실험군	3.56±0.63	4.08±0.50	0.52±0.12	2.68	0.009
	대조군	3.44±0.56	3.72±0.74	0.28±0.14		
피드백	실험군	3.67±0.62	4.13±0.58	0.46±0.13	3.17	0.002
	대조군	3.49±0.59	3.72±0.67	0.23±0.13		
자아 존중감	실험군	3.51±0.67	3.93±0.62	0.43±0.14	2.84	0.019
	대조군	3.46±0.70	3.61±0.66	0.15±0.15		

IV. 논의

본 연구는 하브루타 학습법 적용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정하고자 시도하였다. 하브루타 학습법을 사용한 다른 연구들에서는 교양교과목이나 온라인 토론활동, 교직과목 수업, 토론 수업에서의 효과 연구들에 주로 적용하였으나[20][21][22],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학 전공교과목인 성인간호학 수업에 적용하였다. 교육과정이 비슷한 2개의 대학을 대상으로 1개 대학은 실험군으로 하브루타 학습법을 사용하였고, 다른 1개

대학은 대조군으로 전통적인 강의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성인간호학 수업 전과 후에 온라인 설문을 배포하여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을 살펴보면 실험군의 나이는 25세 이상이 8명(18.6%)인 반면 대조군은 14명(28.0%)으로 대조군이 다소 연령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에서 불만족은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에서 나타나지 않았으며, 다른 변수에서도 일부 차이는 있었으나 모든 변수에서 동질하다는 결론을 보였다.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증에서도 모두 동질하였으나,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의 평균이 모든 변수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차이는 문제해결능력의 하부항목인 피드백이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실망하기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다른 사람의 비판이나 조언도 받아들이며, 충고에 따라 행동을 바꾸고, 충고를 부탁하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어 문제해결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 하겠다. 실험군에 속하는 학생들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피드백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간호대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을 확인한 결과 실험군은 평균이 사전 3.64점에서 사후 4.01점으로 향상되었으며, 대조군은 사전 3.59점에서 사후 3.80점으로 향상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균의 차이는 실험군이 0.37점, 대조군이 0.21점으로 실험군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비대면 하브루타 학습 방법을 연구한 김미진[29]의 연구와 온라인 하브루타 학습법을 적용한 박혜서[30]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나타냈으며, 하재현 등[31], 이정연[32], 조은영 등[33]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는 하브루타 학습 방법의 구성에 따라 달라진 결과를 보인 것으로 김미진의 연구와 박혜서의 연구에서는 15주 중 하브루타 학습법을 4주를 진행하였고[29][30], 하재현의 연구는 6주를 진행한 결과로 보여진다[31]. 다만 본 연구는 6주를 진행하였음에도 6주 중 1시간씩만 운영하였으므로 전체 적용 시간은 4주를 진행한 연구보다 더 적었다. 따라서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브루타 학습법 적용은 6주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하브루타 학습법을 적용하여 수업을 이수한 실험군과 전통적인 강의 방법으로 수업을 이수한 대조군의 문제해

결능력 향상 정도를 확인한 결과 실험군은 평균이 사전 3.54점에서 사후 4.01점으로 향상되었으며, 대조군은 사전 3.44점에서 사후 3.73점으로 향상되었다. 실험군의 평균 차이는 0.56점, 대조군의 평균 차이는 0.29점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하게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소인 문제인식, 정보수집, 분석능력, 확산적 사고, 의사결정, 기획력, 실행과 모험 감수, 평가, 피드백의 9개 모든 영역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문제해결능력의 향상 정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하브루타 학습법을 적용하여 간호학과 지역사회간호학 전공 교과목을 수강하는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단일군 전후 실험 연구를 한 정미라 등[34]의 연구와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고현 등[35]의 연구, 교직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선영 등[20]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하브루타 학습법은 기존의 전통적인 강의 중심 수업 방식과 달리 짝에게 가르치는 과정을 진행하면서 철저히 공부하고 질문에 스스로 대비하게 된다. 또 친구에게 가르침을 받는 과정에서 경청하는 방법을 알고 서로 토론하고 관련정보를 찾아보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문제해결능력은 자연스럽게 향상된다고 할 수 있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자아존중감 향상 정도를 확인한 결과 실험군은 평균이 사전 3.51점에서 사후 3.93점으로 향상되었으며, 대조군은 사전 3.46점에서 사후 3.61점으로 향상되었다. 실험군의 평균 차이는 0.43점, 대조군의 평균 차이는 0.15점으로 나타났으며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이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시기는 다양한 경험들을 통하여 형성된 자아존중감이 발달하는 시기로 외적 자아존중감은 타인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내적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것을 말한다[36]. 이는 자신이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른다면 내적 자아존중감이 증가될 것이며, 이는 다시 타인에게 보여지는 외적 자아존중감도 함께 증가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된다면 자아존중감도 함께 증가된다고 할 수 있다.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문제해결능력의 향상을 가져왔고 이로 인하여 자아존중감도 함께 향상했다고 보여진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은 긍정적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을 때 선순환의 역할을 하게 되어 환경과 조건의 변화에도 지속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37],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은 경우 부정

적 자아존중감이 유지되는 어려움을 겪는다. 간호대학생들은 학업과 실습을 병행하고 있으며, 간호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동적인 전문분야로[38] 간호사 뿐 아니라 간호대학생도 단순히 지식을 가진 실무자가 아닌 통합적이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39]. 이는 간호대학생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문제해결능력의 향상은 지속적인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가질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하여 하브루타 학습법의 사용은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하브루타 학습법을 사용한 수업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시행되었다. 간호학과 3학년 학생 93명을 대상으로 실험군은 하브루타 학습법을 대조군은 전통적인 강의 형식을 사용하여 수업하였다. 연구 결과 문제해결능력과 자아존중감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문제해결능력의 9개 하위요소에서도 모두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의사소통능력은 평균 점수는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브루타 학습법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제외한 13주 중 6회 1시간씩만 적용한 것이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을 충분히 향상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문제해결능력의 향상이라는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간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능력인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40] 하브루타 학습법을 최소 10시간 이상 적용하여 결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첫째, 동일 교수자가 하브루타 학습법과 전통적인 강의 형식을 사용하여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및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교양교과목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으나 전공교과목에서도 더 많은 하브루타 학습법을 사용하여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및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및 자아존중감 이외에도 다른 변수로 하브루타 학습법을 비교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R. Sternberg, and J. Davidson. "The Nature of Insight." Cambridge. Mass: MIT Press. 1995.
- [2] D.H. Moon, "Effect of Team-based Learning on International relationship, self leadership and Learner's Participation of Nursing Students." J of Digital Contents Society, Vol. 20, No. 7, pp. 1373-1380, 2019. DOI : 10.9728/dcs.2019.20.7.1373
- [3] Y.S. Lee, and Y. Eun, "The Effect of the Flipped Learning on Self-efficac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2, No. 4, pp. 567-576, November 2016. DOI : 10.5977/jkasne.2016.22.4.567
- [4] S.H. Song. "The effect of pro-con cooperation learning on critical thinking and learning motivation, self-directed learning attitudes and subject-specific interest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Vol. 22, No. 1, pp. 103-119, 2019. DOI : 10.17927/tkjems.2010.22.1.103
- [5] S.B. Kim,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a Shift in College Teaching Methods through the Adaptation of Havruta : Teaching Methods-Centered Way." Youngnam Theological University and Seminary, Theology and Ministry No. 44, pp. 389-415.
- [6] S.S. Jeon, "Children's Education Revolution Habuta.." Seoul: Duranno. 2015.
- [7] O.A. Kent, "Theory of Havruta Learning." J of Jewish Education. Vol. 76, No. 3, pp. 215-245, 2010. DOI : 10.1080/15244113.2010.501499
- [8] H.J. Park. "Correlations among Nursing Professionalism,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leadership in Nursing Students." J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1, No. 2, pp. 227-236, 2015. DOI : 10.5977/jkasne.2015.21.2.227
- [9] S.Y. Kim, and H.S. Kim, "Effects of the SBAR Training Program in Essential Fundamental Nursing Skills on Communication Compet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blem-Solv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J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0, No. 2, pp. 1071-1086, 2020. DOI : 10.22251/jlci.2020.20.2.1071
- [10] K.H. Kim, and E.H. Hwang, "Influence of Ego-resili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 Leadership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Nursing Students." J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2, pp. 436-445, 2016. DOI : 10.5762/KAIS.2016.17.2.436
- [11] K.R. Shin, J.Y. Ha, K.H. Kim, "Longitudinal Study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 Critical Thinking Skills in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 J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5, No. 2, pp. 382-389, 2005.
- [12] J.Y. Kim and Y.Y. Chol, "Particip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by Learning Styles in Problem Based Learning."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16, No. 2, pp. 200-206, 2009.
- [13] F. Terzioglu, "The Perceived Problem-Solving Ability of Nurse Managers." Journal of Nursing Management, Vol. 14, No. 7, pp. 340-347, 2006. DOI : 10.1111/j.1365-2934.2006.00551
- [14] M. Rogenberg,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 [15] S. Sasat, P. Burnard, D. Edwards, W. Naiyapatana, U. Hebden, W. Boonrod, and W. Wongmak, "Self-Esteem and Student Nurses: a Cross-Cultural Study of Nursing Students in Thailand and the UK," Nursing and Health Sciences, Vol. 4, No. 1-2, pp. 9-14, 2002. DOI : 10.1046/j.1442-2018.2002.00095
- [16] H.J. Jung, and H.I. Chung, "Effects of Self-esteem, Emotional Intelligence and Social Support on College Adjustment in First Year Nursing College Students", J Korean Acad Psych Mental Health Nurs, Vol. 21, No. 3, pp. 188-196, September, 2012.
- [17] J.H. Lee, and K.Y. Joung, "Effect of The Intergenerational Family Relationship, Self-Differentiation and Self-esteem of College student on the College life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4, No. 5, pp. 407-429, 2007.
- [18] J.Y. Bae. " The Effect of Havruta Learning Method on Elementary School Student Self-Esteem." Cheongju University of Education Master's thesis
- [19] K.M. Lim, and H.J. Ahn, 2011 K.M. Lim, and H.j. Ahn. "Effect of Children's Mathematical Problem Solving Ability and Their Self-Esteem through Havruta Method Using Math Storybooks." Fam. Environ. Res. Vol. 55, No. 2, pp. 193-204, 2017. Doi.org/10.6115/fer.2017.015
- [20] S.Y. Joung, and H.J. Choi, "The Effects of Online Discussion Activities based on Israeli's Havruta

- Style on Discussion Ability and Social Problems-Solving.” Korean Society for Educational Methods, Vol. 27, No. 1, pp. 39–65, 2015. DOI : 10.17927/tkjems.2015.27.1.39
- [21]S.D. Kim, and K.T. Seo, “A Case Study on the Application of Lesson Based of Havruta Learning.” The Convergent Research Society Among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8, No. 3, pp. 267–277, 2018. DOI : 10.21742/AJMAHS.2018.03.66
- [22]J.Y. Lee, “A Study on the Effects of Debate Classes Using Havruta.” The Journal of Linguistics, pp. 279 - 301, 2018. DOI : 10.21296/jls.2018.09.86.279
- [23]E.H. Kim, Y.J. Ko, and S.N. Kim, “Effects of a Capstone Nursing Research Course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6, No. 10, pp. 473–492, 2016. DOI : 10.22251/jlcci.2016.16.10.473
- [24]R.B. Rubin, and M.M. Martin. “Development of a measure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Communication Research Reports. Vol. 11, No. 1, pp. 33–44, 1994. DOI : 10.1080/08824099409359938
- [25]G.H. Hur,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Vol. 47, No. 6, pp. 380–408, 2003.
- [26]S.J. Lee, Y.K. Jang, H.N. Lee, K.Y. Park,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ife-skills : communication, problem solving, and self-directed learning.” Korean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pp. 1–145, 2003.
- [27]J.Y. Lee, S.K. Nam, B.Y. Choi, J.H. Lee, Y.M. park, S.M. Lee, “Errors in Item Translation of Psychological Assessment by Cultural discrepancy: Revising 8th Item of Rosenberg’s Self-Esteem Scal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10, No. 3, pp. 1345–1358. 2009.
- [28]M.A. Lee, and H.Y. Seon, “Exploring the Effects of A Journal Writing Group Counseling Program on Anxiety and Self-esteem of College Students Preparing for the Public School Appointment Tes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master’s thesis. 2016.
- [29]M.J. Kim, J.h. Park, and H.J. Lee, “Effects of Untact Havruta Learning Method on Communication Ability, Learning Flow, and Self-Confidence of Learning of Nursing Students.” Korea Society for Wellness. Vol. 8, No. 3, pp. 279–301, 2022. DOI : 10.21097/ksw.2022.8.17.3.47
- [30]H.S. Park, Y.H. Oh, J.Y. Lee, and Y.K. Lim, “The Effects of Havruta-based Online Debate on Communication Competency, Self-directed Learning, and Academic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Korea Society for Wellness, Vol. 16, No. 4, pp. 17–22, 2021. DOI : 10.21097/ksw.2021.11.16.4.17
- [31]J.H. Ha, and H.J. Lee. “The Effect of the Education Applying Havruta’s Method on Communication Competency, Critical Thinking Competency, and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Korea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Vol. 31, No. 3, pp. 337–347, 2020. DOI : 10.12799/jkachn.2020.31.3.337
- [32]J.Y. Lee, “A Study on a Class Model to Enhance the Debating Skills of Foreign Students: Focused on Teaching Others, a Havruta Practice.” Studie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Vol. 33, No. 2, pp. 81–108, 2019. DOI : 10.16933/sfle.2019.33.2.81
- [33]E.Y. Cho, and S.D. Lee, “The Effects of Havruta Discussion Program on Critical Thinking Ability and Communication Ability According to Learning Style of the Gifted.” Journal of Gifted/Talented Education. Vol. 29, No. 2, pp. 259–279. 2019. DOI : 10.9722/JGTE.2019.29.2.259.
- [34]M.R. Jung, and E. Jeong, “Effects of Havruta Learning Method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blem Solv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Vol. 11, No. 4, pp. 2269–2283, 2020. DOI : 10.22143/HSS21.11.4.160 2269
- [35]H. Go, H.D. Min, J.S. Song, “The Effects of Question-Centered Havruta Lesson on the Creative Personality and Problem-Solving Ability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7, No. 13, pp. 253–278, 2017. DOI : 10.22251/jlcci.2017.17.13.253
- [36]A.H. Maslow, “Toward a Psychology of Being. (2nd Ed.)” Princeton, NJ: Van Nostrand. 1968.
- [37]M. Rosenberg, “Conceiving the self.” NY: Basic Books. 1979.
- [38]S.C.D. Wright, and I. Benninggroff, “Integratin of Research and Nursing Experiential Learning: a Case Study.” Curationis, Vol. 30, No. 1, pp. 41–47. 2007. DOI : 10.4102/curationis.v30i1.1048
- [39]J.K. Go, M.S. Chung, M.A. Choe, Y.I. Park, K.S. Bang, J.A. Kim, M.S. Yoo, and H.Y. Jang, “Modeling of Nursing Competencies for Competency-Based Curriculum Development.” J Korean Acad Soc Nurs Edu, Vol.19 No.1, pp.

87-96, February, 2013. DOI : 10.5977/jkasne.2013.
19.1.87

[40]H.Y. Kim, J.W. Oh, and Y.S. Kim, "Effect of
Acceptance of Others, Friendship, and Empathy on
Communication Skills among the Nursing
Students." The J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9, No. 3, pp. 111-119,
2023. DOI : 10.17703/JCCT.2023.9.3.111

※ 이 연구는 2023년도 광주대학교 대학 연구
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